

大學 論述考查와 漢字教育

李 大 根

成均館大學校 教授
本聯合會 常任執行委員

◇ 언제부터인가 大學入試에 ‘論述考查’란 과목이 도입된 바 있다. 어릴 때부터 ‘4枝選多型’ 등의 고르기나 單答型的 객관식 시험만으로 길들여진 高校 졸업생이 또 그 같은 시험방식으로 대학에 들어오다 보니, 大學에 들어온 후에 대학이 요구하는 복잡한 고급의 수업내용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다소나마 학생들의 學問하는 資質을 닦고 高校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일종의 窮餘之策으로 도입된 制度가 바로 이 대학입시에서의 ‘論述考查’였다고 할 수 있다.

大學에 들어온 新入生이 대학이 요구하는 수업내용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客觀式 시험제도 때문이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 그 이전에 어디까지나 그것은 高校까지의 敎課內容이나 授業방식 등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대학에 들어와 學業을 이수하기에 필요한 基礎的 資質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는 데는 다들 공

감하는 바이었다.

이를테면, 학생들이 우선 事物이나 事象을 인식하는데 너무나 理解力이나 論理性이 부족하고, 또 글이나 말로써 자신을 나타내는 表現力의 결여, 심지어 간단한 文章마저도 主語와 述語를 제대로 맞게 쓰지 못하는 등 그야말로 大學에서 학업을 이수하는데 요구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건전한 生活人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全國 대부분의 大學이 의욕을 가지고 論述고사를 치르고 또 전체성적에서 차지하는 논술고사의 비중도 人文-社會계열의 경우는 꽤나 높게 반영함으로써, 수험생으로 하여금 論술고사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 거기에 철저히 대비케 하는 效果를 가져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論술고사를 치르고 들어온 學生이 그 이전의 학생에 비하여 期末 레포트나 시험답안지

작성에서부터 文章力이나 表現力 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발견하고 大學街는 크게 만족하는 분위기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論述考查의 意義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시험 당국인 大學이 '主觀式'으로 치러지는 논술고사를 出題함에 있어 수험생들로 하여금 다소나마 '客觀的인' 回答을 이끌어낼 수 있는 問題를 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바람직한 出題가 대단히 어려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무리 出題委員(교수)이 머리를 짜내어 낸 問題라 하더라도 나중에 採點과정에서는 많은 採點委員들로부터 答案의 客觀性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게 일고, 이렇게 恣意的인 採點이 될 바에야 논술고사를 아예 치지 않는 쪽이 오히려 수험생을 위해 낫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마련이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외부에서는 論述考查의 중요성이 더해지자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論述課外가 성행하게 되고, 학생들은 學校나 論述學院을 통해 주요 時事문제 등을 중심으로 몇 개의 예상문제를 골라 模範答案을 만들고, 그것을 이해하기 이전에 우선 달달 외워서 시험에 임하는 방식으로 논술고사 준비를 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실제 논술 시험문제가 무엇이 나오든 자신이 준비한 예상문제 가운데서 가장 비슷한 내용을 골라 미리 준비한 模範答案을 그대로 옮겨놓는 식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이리하여 실제 시험을 치른 많은 수험생의 答案이 우선 내용을 잘 쓰고 못 쓰고를 가리기 이전에, 出題者의 意圖와는 걸맞지 않은 내용을 쓴 경우가 허다할뿐더러, 그러한 상당한 東問西答式의 내용이지만 그 자체로는 거의 完璧에 가까운 매우 훌륭한 答案(그것이 모범답안을 옮겨놓은 것이므로)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러한 유사한 答案이 마치 컨닝이나 한 것처럼 한 채점장 안에서도 여럿씩이나 튀어나오는 眞 풍경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쯤 되고 보니, 論述考查 無用論이 다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 당초 학생들로 하여금 '論述'이란 主觀式 시험을 한번 어렵사리 거치게 함으로써, 부족한 論理나 推理力, 文章力 나아가 自己 表現力 등을 다소나마 배양해보자는 데 論述고사를 보게 한 진실된 배경이 있었다고 하면, 이러한 政府나 大學 당국의 당초 意圖는 논술문제까지도 객관식으로 준비하는 學校나 學生, 또는 學院街의 잘못된 風潮로 말미암아 철저히 무시되고 말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大學은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논술고사의 出題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었다. 종전에 한 가지 主題를 주고 수험생으로 하여금 그 主題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개진하는 그러한 스타일로부터, 이를테면 몇 개의 의미가 有關한 文章을 '例示文(또는 提示文)'으로 먼저 수험생에게 던져주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그 상호간의 聯關性이나 矛盾관계 등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이나 의견을 묻는 복잡한 방식으로 바꾸었던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事前에 몇 개의 객관적인 모범답안을 준비하여 시험에 임하는 식의 폐단을 막고 또 가급적 問題의 領域을 한정시킴으로써 答案내용이나 채점과정에서 제기되는 주관적인 판단의 여지를 가급적 배제코자 했던 것이다. 예컨대, 수험생으로 하여금 例示文 속에 나오는 주된 單語(概念語)를 몇 번 이상 또는 몇 개 이상 반드시 문장속에 引用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例示文 속에 나오는 사람의 말이나 주장을 몇 번 이상 引用해야 한다든가 하는 식의 조건을 붙여 答案을 작성토록 학생들에게 요구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상의 例示文을 韓國語로 된 것만이 아니라 英語로 된 文章도 동시에 제시하여, 우선 그 英語 문장을 辭典 없이 해석하지 못하면 아예 答案을 작성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더구나 그 英語 문장과 韓國語 문장을 종합하여 먼저 그 내용부터 요약한 다음에 그에 대한 本人의 생각이나 입장을 밝히게끔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는 이미 본래적 의미에서의 논술고사가 아니라, 한낱 영어시험을 보는 것처럼 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論述고사가 英語시험으로 둔갑하게 되었다고나 할까.

◇ 당초 대학입시에서 論述고사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그 나름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입 초기에는 그 나름의 상당한 성과도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고사가 도입된지 6~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것이 한 걸음 발전하기는커녕 오히려 歪曲, 變質되고 어쩌면 廢止될 운명에까지 처하게 되었는데(기실 현재 서울의 일부 우수대학을 제외하고는 全國의 많은 大學이 이미 논술고사를 폐지하였다).

그에 대한 回答은 간단 명료하다. 처음부터 大學 新入生이 대학에서의 고급 學問을 할 기초 資質을 갖추지 못하고 대학에 들어온다고 하여 그것을 論述考查와 같은 입시과목을 덤으로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해결코자 한 發想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그것이 전체 入試成績에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는 마당에 있어서야 두말할 여지조차 없는 일이었다.

대학에 들어오는 新入生이 고급 學問을 할 기초 資質을 닦지 못한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高等學校까지의 授業을 올바르게 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事物에 대한 理解力이나 推理力이 약하고, 文章力이나 자신의 意思를 나타내는 表現力 등이 지극히 약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까지의 國語(韓國語)教育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國語는 철저한 道具 科目이다. 國語를 제대로 익히지 않고서는 다른 모든 科目을 제대로 이수해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정확히 읽

고 듣고 또 쓸 수 없다고 하면 그 어느 科目인들 어떻게 제대로 공부를 해낼 수 있겠는가 말이다.

학생들이 理解力이나 推理力, 文章力이나 자기 表現力 등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高校까지의 國語教育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韓國의 國語教育이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그것은 이름부터 '韓國語'라는 객관적 이름을 달고 가르쳐야 할 것을 처음부터 '國語'라는 민족적 이데올로기를 내포한 이름으로 가르친 것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일단 이를 論外로 하더라도, 오늘의 우리 國語教育의 핵심적인 잘못은 바로 우리말과 글을 일치시켜 가르치지 않는 데 있다.

글이란 원래 말을 담는 그릇이다. 따라서 글은 말을 정확히 담는 데 스스로의 生命이 주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우리의 國語教育은 우리의 말을 제대로 담는 '글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는데 문제의 核心이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固有語와 漢字語를 함께 지니고 있는 우리의 말을 올바르게 담기 위해서는 한글과 함께 漢字를 동시에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日帝下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릇된 폐쇄적 '文字民族主義'로 말미암아 '한글專用主義'가 得勢하고, 그 바람에 學校에서 漢字를 가르치지 않는 크나큰 誤謬를 범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政府나 大學은 쓸데없는 論述考查를 가지고 마치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식의 구차한 짓거리랑 당장 그만두고, 학생들을 어릴 때부터 한글과 漢字를 동시에 가르치는 國語教育의 正常化를 통해서만 오늘의 韓國 대학 신입생이 당면한 基礎 資質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自覺과 信念을 가져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